

“서부지역 염지하수 활용 제도개선 검토”

위성곤 지사, 고수온 피해 대정읍 지역 찾아 현장 상황 점검

위성곤 제주지사가 제주 연안의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한 대정읍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염지하수 활용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연안 표층수온은 평균 27.5℃, 제주항은 관측지점 중 가장 높은 29.3℃를 기록하는 등 고수온은 재난 위기경보 ‘심각1’ 단계 속에 서귀포시 대정읍 6개 양식장, 넓치 3만 2995마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지난 1일 위성곤 지사를 만난 피해 양식어업인들은 서부지역 양식장이 지하해수를 활용하기 어려워

고수온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고수온 시기에 염지하수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관정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낮은 수온의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관 연장사업 확대와 액화산소 추가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물류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지사는 “액화산소 등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지원은 수요를 파악해 고수온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취수관 연장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어 “염지하수 활용 문제는 지하수



위성곤 제주지사가 제주 연안의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피해가 발생한 대정읍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전과 양식어가의 생존을 함께 고려해 관계 부서와 제도 개선 가능

성을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후보지 21곳 현장조사

제주시는 2027년도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 대상지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설치 적정성 검토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 대상지를 신청받은 결과, 7개 읍·면·동에서 총 21개 후보지가 접수됐다. 접수된 후보지는 공유지와 마을부지로, 주민 수요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발굴된 부지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신청 부지의 면적 확보 여부와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비롯해 상·하수도 연결 가능성, 차량 진입·출입 여건, 이용자 접근성, 기존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사전에 파악해 대상지별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대상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신축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 위영석기자



비를 대신해... 지난 1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농민이 파종을 마친 당근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뿔에 물을 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문화유산 연북정·조천진성, 밤에도 빛난다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완료

제주지역 문화유산인 제주시 조천읍 연북정과 조천진성이 밤에도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6월 연북정과 조천진성 주변 아래에 경관 조명등을 시설하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착수해 최근 공사를 마쳤

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과 관광객은 야간에 어두웠던 이들 성 주변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또 두 유적이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다른 도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개선사

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연북정·조천진성 야간경관 조성은 제주 문화유산 야간경관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제주성지, 명월성지, 대정성지 등 주요 문화유산으로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성산포항 5000t급 화물선 3척 동시 접안 가능

총 사업비 377억원 투입 화물부두 확충공사 완료

앞으로는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포항에 5000t급 화물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가 지난달 31일 준공했다.

이번 공사는 377억원을 투입해 성산항내 수심을 5.5m에서 7.5m로 늘리고, 부두 접안시설을 폭 20m, 길이 390m로 확충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시작했다.

확충 공사가 완료되면서 5000t급 화물선 3척이 성산포항에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00t급 이하만 배를 댈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공사로 수송 효율이 향상돼 도내 화물주들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경제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만 내 안전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전망이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은 제주 동부권 물류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확보하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상물류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청년원탁회의 6개월 성과... 정책 38건 제안

도, 채택한 내년 예산 반영

제주 청년들이 마련한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주도 소통협력센터 1층 오픈라운지에서 ‘청년정책 제안의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성곤 지사와 제안정책 소관 실·국장,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활동 소개, 10개 분과별 청년정책 발표, ‘청년정책 토크(Talk)’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관광, 교육, 기후환경, 문화, 신산업, 주거복지, 창업·일자리, 읍면 등 10개 분과의 청년위원 86명으로 구성된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분과회의와 자료 조사, 정책교육, 전문가 자

문을 거쳐 정책을 발굴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6개월간 분과회의 129회, 주권회의 16회, 전체회의 2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8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의 검토 결과 7건은 채택, 8건은 일부 또는 수정 채택됐으며 14건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제도적 제약,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머지 9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중 채택된 정책은 8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후 내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TF 본격 운영

서귀포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 상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최근 원도심 내 이중섭거리 명동로 100억 원, 중정로 일원 46억 원, 천지동 일대 231억 원 등 국비 공모사업이 순차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도심 상권 벨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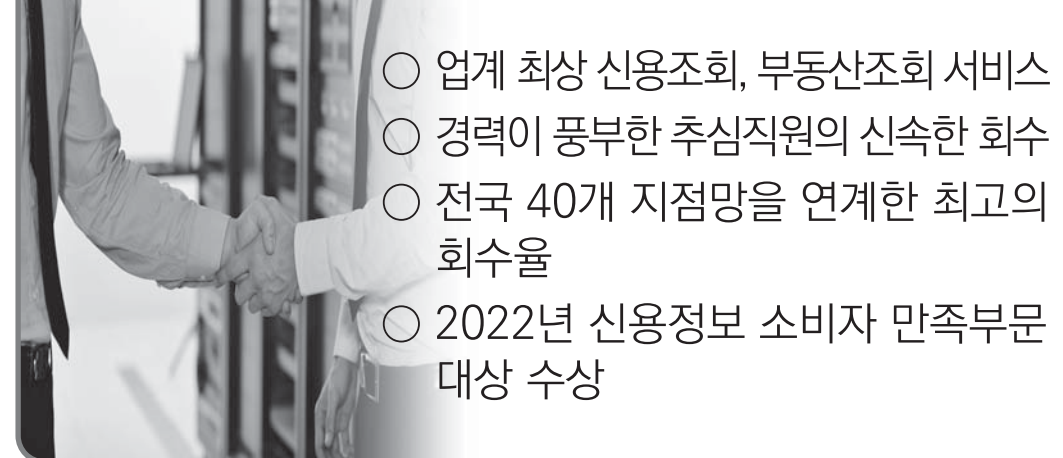
및 협업 사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민·관협력 TF팀은 김원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9개의 관계부서와 3개의 상권협의체,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됐고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방향성 조율,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영석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